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	보도자료	2026. 11. 1.(일) 0시 이후 보도 가능		
농업기술원		과수연구과장	고승찬	☎760-7400
		업무담당자	이현주	☎760-7423
		홍보담당자	양지순	☎ 710-7514

스낵파인애플, 제주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키운다

- 소비자 종합 만족도 86점…식용 편리성·관광상품 적합성 등 긍정 평가 -
- 2027년 재배기술 확립 및 농가 실증 추진…2028년부터 보급 목표 -

❑ **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이 손으로 떼어 먹는 아열대과수 '스낵파인애플'을 새소득 작목으로 키우기 위해 2028년 농가 보급을 목표로 재배기술 확립에 나선다.**

○ 농업기술원이 지난해 스낵파인애플을 들여와 시범 재배한 결과, 일반 파인애플보다 소득이 23% 높고 소비자 만족도는 86점으로 나타났다.

❑ **제주의 아열대과수 재배면적은 87ha(232농가)로 전국의 38.3%를 차지하는 전국 1위다.**

○ 재배면적은 2010년 41ha에서 2018년 56.6ha, 2022년 58.4ha, 올해 87ha로 늘었지만, 74.5%(64.8ha)가 망고에 몰려 있어 재배 작목을 다양화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.

❑ **농업기술원은 기후변화와 소비 흐름 변화에 대응해 지난해 스낵파인애플(품종명: 대농4호)을 들여와 제주에서 재배 적응성을 살펴보고 있다.**

○ 스낵파인애플은 과육을 손으로 쉽게 떼어 먹을 수 있고 가운데 심까지 먹을 수 있어 일반 파인애플과 다른 상품성을 갖췄다. 일본 오키나와의 대표 특산품으로 한국 관광객에게도 인기가 높다.

❑ **재배 결과 과실 평균 무게는 837.5g, 당도는 14.6브릭스였으며, 10a(1,000㎡)당 예상 소득은 약 1,514만 원으로 국내산 일반 파인애플(1,226만 원)보다 23% 높았다.**

○ 농업기술원은 9월 두 차례 평가회를 열어 도내외 소비자 51명을 대상으로 수입산 파인애플과 비교해 외관, 과실 품질, 상품성 등 16개 항목의 만족도를 조사했다.

○ 그 결과 종합 만족도는 86점이었으며, 특히 △과피색과 과육색 △먹기 편한 정도 △관광상품 적합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.

❑ **농업기술원은 2027년부터 재배기술 확립과 보급체계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.**

○ 과실 크기와 당도를 높이는 품질 개선 기술, 번식아*를 활용해 재배기간을 줄이는 기술을 개발하고, 농가에서 쓸 수 있는 재배 지침서를 만들 계획이다.

* 번식아: 식물을 영양번식할 때 쓰는 눈이나 새순

○ 또한 도내 농가 2곳에서 실증재배로 재배 안정성을 검증하고, 2028년부터 농가에 본격 보급할 수 있도록 묘 생산·공급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.

❑ **김태균 농업기술원장은 “스낵파인애플은 기후변화 시대에 제주 농가의 작목 선택 폭을 넓혀 줄 유망 아열대과수”라며 “재배기술을 확립하고 안정적인 보급 기반을 갖춰 아열대과수 재배구조를 다양화하고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하겠다”고 말했다.**